

전주한옥마을, 방송 촬영지 인기

경기전·전주향교 등서 촬영한 드라마 '연모'·'웃소매 붉은 끝동' 등 연이어 방영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경기전과 전주향교가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경기전과 전주향교에서 촬영한 KBS '연모'와 MBC '웃소매 붉은 끝동'이 연이어 방영되는 등 전주한옥마을이 드라마 등 방송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 2주 만에 넷플릭스 전세계 순위 톱10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으며 지난 14일 종영한 KBS2 월화드라마 '연모'의 경우 경기전과 전주향교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경기전에서는 정전과 돌담, 전주사고와 협문, 대나무숲 등이 사극드라마의 멋진 분위기를 살렸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에 전통안료로 새로 단청을 채색한 전주사고(실록각)는 단아한 자태로 '연모' 후반부에 주인공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의 배경으로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또 전주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 은행나무도 '연모'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장소로 소개됐다. 주인공들이 몰래 만나는 비밀의 문이 전주향교에 설치돼 촬영됐으며, '연모' 후반부 반정세력과의 전투장면 또한 대성전 앞 넓은 마당에서 촬영이 됐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금토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도 전주향교에서 찍었다. 드라마 초반 궁인들의 연회가 펼쳐진 장소가 대성전 앞 넓은



전주향교 전경.

마당으로, 이후에도 전주향교 촬영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전에서는 △황산벌(2003년) △궁(2005년) △공S(2007년)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년) △역린(2013년) △미스터션사인(2018년) △영화 창궐(2018년) △녹두꽃(2019년) △더 킹 : 영원의 군주(2020년) 등이, 전주향교에서는 △YMCA야구단(2002년) △성군관 스캔들(2010년) △라라라(2010년) △보통의 연애(2012년) △구르미 그린 달빛(2016년) 등의 촬영이 이뤄졌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경기전과 전주향교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특히 경기전 대나무숲은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더 나아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활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전(사적 제339호)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초상화)을 봉안한 곳이며, 전주향교(사적 제379호)는 조선시대 호남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야호학교,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참여자 모집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며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주시야호학교는 다음 달 7일까지 만 11~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꿈찾사)'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 활동 등 4가지 활동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성장 프로그램으로, 내년 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자기도전 포상제 활동을 마친 청소년에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

장 명의의 포상인증서와 금장, 은장, 동장 등 포상, 우수활동 청소년 시상(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aptain469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야호학교(063-281-658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

해 기초체력 향상을 돕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만 5~18세 시민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월 8만5000원씩 10개월간 수강료를 지원받아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올해 8만 원

이었던 월 지원금이 내년에는 8만5000원으로 늘어나며, 8개월이었던 지원기간도 10개월로 2개월 연장된다.

희망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 반월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1차로형으로 정비·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보행 안전 강화

Y자형 교차로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전주 덕진구 반월삼거리가 회전교차로로 개선됐다. 주변에는 감속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단절됐던 보도도 연결돼 보행 안전이 강화됐다.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총사업비 2억8000만 원을 들여 추진해왔던 반월삼거리(반월동 627-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반월삼거리의 경우 Y자형의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다 평상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의 운행이 많아 구조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에 시는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경 15m의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으며, 진입 구



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했다.

교차로 부근 단절됐던 보도를 인근 아파트까지 연결하고 주변 환경을 밝게 개선하기 위해 가로등 9개를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 주변에는 경우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기울기)를 잡아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 23명 양성

심화과정 교육 후 2024년까지 시민 22만명 대상 추진되는 시민인식 전환교육 투입

전주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탄소저감 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시민 22만 명을 대상으로 시민인식 전환교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교육을 이끌 시민강사 20여 명을 양성했다.

시는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시민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총 23명의 탄소중립 시민강사를 배출했다.

지난 10월 시작한 탄소중립 시민강사 양성과정은 이론 30시간, 현장견학 2시간, 강의시연 8시간 등 총 20회, 40시간에 걸쳐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탄소중립 시민강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이론과 세대별 강의법,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학습했으며, 전주중합리싸이클링타운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에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범교육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총 468명에게 32회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시민강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열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의법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법을 교육한 뒤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로 위촉할 방침이다.

위촉된 시민강사는 오는 2024년까지



시민 2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단계적 시민인식 전환교육에 투입된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등에서 연별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 전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전주시 상인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4대 종단,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전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 공동체협의회, 전주시체육회 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

려했다. 또 지난 12월 초 2차례에 걸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내년 2월에 개최되는 3번째 원탁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지구적 과제로, 선안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해 시민 맞춤형 교육은 물론 탄소중립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